

센(Sen)의 능력 접근을 통한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생활실태에 대한 질적 평가*

The Qualitative Evaluation of Low-Income Single Mother Families' Poverty Status According to the Capability Approach of Amartya Sen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부 교수 이성림**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생활과학연구소

부 교수 손상희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교수 진미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 교수 성미애***

Dept. of Consumer &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

Associate Professor : Lee, Seong-Lim

Dept. of Consumer Science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Sohn, Sang-Hee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Chin, Mee-Jung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Assistant Professor : Sung, Mi-Ai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poverty experiences of low-income single mothers according to the Capability Approach of Amartya Sen. In this approach, the capability to achieve the basic functionings of life, not income itself, is the criterion of poverty. 26 single mothers were interviewed using focus-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21 functionings on the existence level, 18 on the relatedness level, and 15 on the growth level were found in the areas of work, health, food consumption, clothing, housing, child rearing, and leis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ow-income single mothers can achieve only some of the existence level functionings with significant help from welfare services. They can scarcely achieve higher level functionings in any of these areas.

▲주요어(Key Words) : 빈곤여성가장(low-income single mothers), 센의 능력 접근(the Capability Approach of Amartya Sen), 엘더퍼의 욕구이론(the ERG Theory of Alderfer), 능력(capability), 기능(functioning), 생활실태(life condition), 생존(existence), 통합(relatedness), 성장(growth)

* 본 논문은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생활실태에 대한 질적 평가 -Sen의 능력 접근을 기반으로-”라는 제목의 빈부격차·차별시정 위원회 연구보고서(2006-06)(2006)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주 저 자 : 이성림 (E-mail : clothilda@skku.edu)

*** 교신저자 : 성미애 (E-mail : eliza_s@knou.ac.kr)

I. 문제제기

본 연구는 빈곤의 삶이 성적, 계층적 지위로 인해 가장 침해 하게 드러나는 여성가장 가계의 생활실태를 일과 노동, 건강, 주생활, 식생활, 의생활, 여가/문화생활, 자녀양육 및 교육 등 7개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능력 접근(Capability Approach)에 따라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빈곤의 영향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심각성을 가지지만, 여성가장 가계의 빈곤은 만성적이고 장기화되기 쉽다는 면에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 당시 남성 가구주의 빈곤률은 7.3%인데 비해 여성가구주의 빈곤률은 19.3%에 이르며(황덕순, 2005), 남성가장 가구가 경제위기에서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인 것과는 달리 여성가장 가구의 빈곤률은 경제위기 이전의 2/3 수준으로만 회복되며 빈곤의 고착화 현상을 보였다는 결과(석재은, 2004) 등은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여성가장은 남성가장에 비해 학력이 낮고 취업가능성도 낮으며, 보다 낮은 고용지위에 머무르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빈곤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내적으로 볼 때 여성가장은 제한된 경제적, 시간적 자원을 가지고 부양자의 역할과 자녀양육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두드러진다. 그 결과 여성가장의 경우 일단 빈곤 상태에 빠지면 장기 빈곤 경향이 가장 강한 집단이 된다(구인회, 2005). 이러한 연유에서 빈곤 여성가장, 특히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빈곤 여성가장 가계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 전반적인 빈곤 문제와 연결하여 빈곤 여성가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빈곤 여성가장 가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빈곤 여성가장 가구를 둘러싼 관점에 대한 연구들이다. 여기에는 여성가장 가구와 빈곤 사이의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데 관련된 논의와 여성가장의 사회적 권리를 어머니와 노동자 중 어느 쪽을 중심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정미숙, 2001; 송다영, 2006; 황미영, 2005)로, 이들 연구들에서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서구의 복지국가 재편과정에서 모성주의에 근거한 과거의 수급권을 종식시키고 노동연계적 빈곤 정책 과정에서 모성 역할에 정체감을 두고 있는 여성가장의 욕구가 간과되는 측면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는 빈곤 여성가장과 여성가장 가구의 실태를 각각도로 살펴본 연구들(김승용, 2005; 옥선화 등, 2002; 옥선화 등, 2003; 옥선화·성미애, 2004; 석재은, 2004; 성정현·송다영, 2006; 여지영, 2003; 유정원, 2000; 이성림·김민정, 2001; 이성림, 2004; 이혜경, 1998; 정영숙·박충선, 1998; 진미정·김은정, 2005 등)로, 빈곤 여성가장 가족은 경제적

문제, 직업의 불안정성, 저임금, 건강,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주거 문제, 심리사회적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계획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는 빈곤 여성가장 가구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효과 및 활성화 방안, 특히 자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 연구들(강남식·백선희, 2001; 박영란·황정임, 2002; 윤홍식·김광혁, 2006; 정원오·김진구, 2005; 황정임·송치선, 2006 등)로, 빈곤 여성가장가계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이들 가계의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은 있으나 궁극적으로 탈빈곤하도록 하는 효과는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는 빈곤 여성가장이 직면하는 정체감의 문제에서부터 빈곤한 생활실태, 복지정책이 가족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면서 빈곤과 여성가장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조합되어 파생되는 독특한 삶의 곤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빈곤 여성가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빈곤실태에 대한 파악과 함께 탈빈곤 정책에 함의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활실태를 이론적 틀과 연결 지으면서 보다 총체적으로 빈곤 상태를 이해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질적인 접근을 통해 빈곤 여성가장의 목소리로 '빈곤'과 '여성가장의 삶'을 살펴본 연구들은 있지만, 빈곤에 관한 일반 이론과 연결 시켜 평가하면서 분석한 논의는 없었다. 즉 빈곤 여성가장에 대한 대부분의 질적 연구들은 빈곤에 관한 일반적 이론의 맥락에서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에서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빈곤 여성가장의 빈곤 경험에 대한 생활실태를 질적인 자료수집 방법을 통해 파악한 뒤, 아마티아 센의 능력 관점에서 빈곤 상황을 평가하고자 한다. 센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을 개념화하였다. 즉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가치 있는 상대와 행위를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빈곤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빈곤 분석의 일차적 관심소, 소득이라는 수단에서, 수단이 사용되는 목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박탈의 본질적인 내용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아마티아 센 저, 박우희 역, 2001)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센의 이론에서는 구체적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능력 접근에서 강조하는 기능 달성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해서 평가하고자 센의 빈곤이론과 더불어 엘더퍼(Alderfer)의 욕구이론을 고려하였다. 엘더퍼의 욕구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생존, 사회적 통합, 성장의 차원으로 위계화함으로써 빈곤이 이러한 욕구 및 욕구를 반영하는 기능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유용하다.

빈곤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소득 기준의 빈곤률은 빈곤 가구의 규모 파악이나 추이 분석에는 유용하다. 하지만 빈곤이 가진 다차원적인 속성과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빈곤층이 경험하는 빈곤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경제 규모와 수준이 발전하면서 절대적 의미의 빈곤은 감소되었지만, 양극화로 요약되는 상대적 의미의 빈곤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빈곤의 의미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센의 능력 접근과 앨더퍼의 욕구 이론이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되리라 본다. 얼마를 벌어들이는가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으로 관심의 초점을 맞추으로써 새로운 각도에서 빈곤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빈곤의 다차원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보다 정교한 빈곤측정지표를 개발하는 데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의도 있다(최균·서병수, 2006).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 실태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서술하는 차원을 넘어서 빈곤에 대한 일반 이론으로 잘 알려진 센의 능력 접근을 앨더퍼의 욕구이론에 따라 이론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생활영역에서의 빈곤 실태를 질적 자료수집 방법으로 파악하고, 생활실태 자료에 근거하여 일과 노동, 건강, 주생활, 식생활, 의생활, 여가/문화생활,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에서의 주요 기능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출된 기능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빈곤 상태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생활실태를 새로운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빈곤 여성가장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거나 정책 제언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 센의 빈곤 개념과 능력 접근

빈곤이란 최저한의 생활수준이 되는 기준, 즉 최저수준의 생활표준을 정하고 특정 가구의 생활수준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다. 생활수준을 어떠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느냐에 따라 빈곤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소득 등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보유 수준이나 소비 수준을 통하여 생활수준을 가늠하게 된다.

그러나 아마티아 센은 기존의 빈곤 측정 방법이 오늘날 목격되는 빈곤의 실재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Sen, 1983). 보유 자원에 초점을 맞춘 계량적 방식의 빈곤 측정 방법은 사회의 전반적인 부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와 빈곤이 초래하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 등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동일한 수준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궁극적인 복지의 수준은 동일하지

않으며, 이는 개인적 상황이나 사회적 조건에 따라 자원을 자유로 전환시키는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이성림, 2007). 이러한 배경에서 센이 주목한 개념은 '능력'이다. 센은 능력을 인간의 욕구를 성취하는 것, 다양한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¹⁾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삶을 이끌어가면서 개인이 행하고자 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가치 있는 것들로, 적절한 영양섭취, 건강유지, 질병 예방, 조기 사망 예방 등의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자기 존중 확보, 수치심 없이 사회생활에 참여 하는 것과 같은 보다 복잡한 사회적인 기능들을 포함한다(이성림, 2007).

그러나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아마티아 센의 능력 접근은 빈곤을 이해하는 새로운 차원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높이 평가받고 있으나, 실제 센의 능력 접근을 실증적 연구 차원에서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계량적 빈곤 개념에 비해 센의 개념들이 추상성이 높아서 실증적 연구문제와 연결시키기 쉽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리라 본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센의 빈곤 개념 관련 연구들도 주로 센의 빈곤 개념을 삶의 질 개념과 연계시켜 소개하고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상호, 2001; 이재기, 1998; 한성덕, 1998 등). 최근의 한 연구(최균·서병수, 2006)에서는 단순히 센의 개념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센의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연역적인 방식으로 빈곤지표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서 센의 이론이나 개념이 실증적인 자료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2. 욕구와 빈곤: 능력 공간의 위계화

센의 능력 접근에 따르면, 빈곤이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생활의 기능이 박탈된 또는 이러한 기능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조건이 박탈된 상태로, 기초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의 불충분이 아니라 능력 실패의 관점에서 파악하게 된다(아마티아 센 저, 박우희 역, 2001). 한편 능력의 성취 또는 실패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능력 공간(capability space)을 구성하는 기능의 확인과 각 기능 요소들의 중요도에 관한 문제이다. 능력을 구성하는 기능의 선택과 가중치 결정은 가치 판단의 문제이며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되는 사회적 선택 작업으로서, 이성적인 평가 및 이성적인 의견 일치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아마티아 센 저, 박우희 역, 2001).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능의 중요도는 사회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더불어 사회적 기대를 반영한

1) 영어로는 capability이고, 연구자들에 따라서 가능성 혹은 능력으로 번역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능력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기능은 영어로 functioning이며, 행동/실현의 의미를 포함한다.

다고 할 수 있다. 센은 기능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능력 공간의 위계화를 욕구 이론의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인간의 욕구와 동기를 살펴본 대표적 이론가인 매슬로(Maslow)는 인간은 생리적 욕구, 안전, 애정과 소속, 자아존중감, 자아실현의 위계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결핍 동기와 성장 동기에 의해 추진된다고 보았다. 앨더퍼(Alderfer, 1972)는 매슬로의 동기이론을 한 단계 발전시켜 보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욕구 이론으로 ERG 이론을 주장하였다. 즉 인간의 욕구는 생존(Existence), 사회적 통합(Relatedness), 그리고 성장(Growth)의 틀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존의 욕구는 다양한 물질적, 생리적 욕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배고픔이나 목마름은 생존 욕구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며, 봉급, 후생수당, 물리적인 작업환경 등도 생존 욕구에 포함될 수 있다. 생존 욕구의 특징은 제한된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다는 것으로, 생존 욕구의 충족이 기본적인 최저수준이 아닌 상대적 비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때의 비교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의미 있는 타자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통합의 욕구는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에 토대하며 상호성의 과정에 의해 충족되는 욕구이다. 수용, 확인, 이해, 영향 등과 같은 것들이 바로 사회적 통합의 요소이다. 사회적 통합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좌절되었을 때 그 영향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 또한 사회적 통합의 욕구는 권력관계나 정서적인 표출과도 연관성이 깊다. 마지막으로 성장의 욕구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새로운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인간은 성장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전인적인 충족감을 경험하게 된다. 성장 욕구의 충족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성취하느냐에 달려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 가지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더 낮은 수준의 욕구에서 더 높은 수준의 욕구 충족을 지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이론에 근거하여 빈곤을 정의하자면 기능의 성취와 관련한 빈곤 상태는 인간의 생존, 사회적 통합, 성장의 욕구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지 못하여 좌절된 상태, 특히 생존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규정해 볼 수 있다.

3.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관련 선행연구 고찰

빈곤 여성가장 가구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도시 가구조사,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대우패널), 정책기획단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등의 소득 및 소비 자료를 분석한 연구와 빈곤한 여성가장을 유의 표집하여 생활 실태, 심리적 상태, 복지요구도, 가족기능 및 빈곤과정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먼저 거시자료를 통해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이해경(1998)은 1982년에서부터 1995년의 도시가구조사 자료를 통해 빈곤인구의 2/3가

여성이며, 빈곤한 노령인구 중에 4/5가 여성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석재은(2004)은 경제위기 이후 어느 정도 탈빈곤이 이루어진 남성가장 가구와는 달리, 여성가장 가구의 경우 탈빈곤에 실패하면서 빈곤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하였으며, 빈곤 여성가장의 경우 학력 수준과 빈곤률이 반비례하며, 비정규직 직업을 가진 경우 빈곤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여성가장 가족을 유의 표집하여 실태를 살펴본 연구들(공선영, 2001; 김안나, 2006; 김영희, 1996; 석재은, 2004; 여지영, 2003; 오선화 등, 2002, 2003, 2004; 유정원, 2000; 이해경, 1998; 진미정·김은정, 2005 등)에 따르면, 대체로 실직률이 높으며, 취업 중인 경우에도 경기변동이 심한 직종에 종사하는데, 대부분 단순노무직, 행상, 하위서비스직, 생산직, 자영업서비스직 등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 수준에 있어서도 여성 노동자의 경우 남성 노동자의 60% 미만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가구는 경제적 문제, 직업의 불안정성, 저임금 등 직업 관련 문제, 건강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 관련 문제, 주거 문제, 우울감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계획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 여성가장은 직업교육, 교육수당 현실화, 조직적인 취업알선 네트워크, 취업 후 사후관리 등 경제적 안정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자녀 대학교육 지원, 자녀의 진로 상담 및 취업 알선, 가정환경 조사의 비공개 등 자녀 관련 지원, 무료 건강검진이나 운동시설 제공 등의 건강 관련 지원 등을 원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복지수혜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빈곤 여성가장들의 생활 실태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생생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빈곤의 실태를 기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떤 이론적 틀과 개념으로 연계함으로써 보다 총체적으로 빈곤 상태를 이해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는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론과 경험적 일반화의 분리라는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은 빈곤 연구의 이론적 취약성으로 연결되며 빈곤 연구의 체계적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빈곤 여성가장의 삶이 어렵다는 사실만 제시할 뿐 정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III. 연구 방법 및 제보자의 특성

1.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연구방법 중 하나인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Focus Group Interview(FGI)와 심층 면접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 연구는 단순화와 한계설정을 최소화하고 현상의 복잡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으로, '발견'을 중시한다(조용환, 1999: 20). 따라서 센의 능력 개념을 통해 빈곤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빈곤 실태를 살펴보면서 빈곤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도출하고 평가해야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는 적절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존, 사회적 통합, 성장 수준에서 빈곤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FGI 속에서 빈곤 여성가장들 서로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FGI에서 발견한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내용의 타당성을 교차 검토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전형적 사례 선정법을 택하였다. 전형적 사례 선정법은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정하는 방법(조용환, 1999, 28)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수급하고 있고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가장으로,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다양한 생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모두 포함하였고,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영유아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조사대상자를 고루 선정함으로써 가족 생애주기 전 단계의 생활모습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적 사례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자활후견기관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여성가장을 소개받았고, 그 중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11월 11일부터 2007년 1월 13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별로 새로운 내용 없이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시점에서 FGI(총 6회, 20명)와 심층면접(총 6명)을 종료하였다. FGI의 경우 일방경과 녹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장소에서 생업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면접의 경우는 녹음이 가능한 자활후견기관 내 사무실이나 학교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제보자가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 면접 시간은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FGI나 심층면접 내용은 제보자의 양해 하에 녹음기로 녹음하였고, 전사본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 절차

FGI와 심층 면접은 어느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가 등 비교적 객관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생활의 전 영역에서 현재의 생활 모습, 힘들고 어려운 생활 내용, 열망하는 생활 상태,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 관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전사본을 분석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FGI 및 심층 면접 전사본을 토대로, Strauss (1987)가 분류한 개방적 코딩, 중추적 코딩, 선택적 코딩 단계로 코딩하였다. 즉 개방적 코딩 단계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제보자가 구술한 빈곤한 생활실태 내용에 토대를 두고 코딩을 하였다. 중추적 코딩 단계에서는 제보자가 구술한 생활실태 영역 하나 하나를 중심축에 놓고 면접 자료와 다른 코딩 내용을 수렴시켜서 각 영역별 중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생활영역별 생존, 사회적 통합, 성장을 중심으로 능력 공간에 해당되는 주요 기능을 도출하는 선택적 코딩을 하였으며, 이러한 기능성취 평가를 통해 일과 노동, 건강, 주생활, 식생활, 의생활, 여가/문화생활,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에서의 빈곤 상태를 진단하였다. 이러한 질적 자료 코딩을 위해 MAXqda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면접 자료를 코딩하는 과정에서 정확성과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4명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단계별 코딩 및 검토와 수정 작업에 참여하였다. 각 단계별 코딩 작업이 끝난 뒤에는 서로의 코딩 범주를 체크하면서 합의가 되면 다음 단계 코딩으로 이행하는 절차를 거쳤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터뷰에 앞서 인적 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서면으로 하였는데, 한 제보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아 총 26명의 빈곤 여성가장 중 25명에 대한 자료만 수집되었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빈곤여성 가장은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연령대(평균 40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혼인 상태는 25명 중 15명이 이혼, 5명이 별거, 그리고 4명이 사별이었다. 가족원 수는 3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거주 형태로는 월세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5명,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17명이었다. 생계급여를 포함하여 월 평균 수입은 88만원이었고, 월 평균 생활비 역시 88만원이라고 기술하였다.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5,550만원이었으나 부채가 전혀 없는 경우(7명)와 1억이 넘는 경우(2명)도 있었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센의 능력 접근에 따라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생활영역을 일과 노동, 건강, 주생활, 식생활, 의생활, 여가/문화생활,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7개 생활영역에 초점을 맞춰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능력공간의 기능요소들을 추출한 후

2) 제보자의 개인별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지면관계상 <부록>에 제시하였음.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구학적 특성

(N=25)

일반적 특성	빈도 (%)	일반적 특성	빈도 (%)
연령		가족원 수	
30~34세	2 (8)	2인	6 (24)
35~39세	8 (32)	3인	10 (40)
40~44세	12 (48)	4인	7 (28)
45~59세	2 (8)	5인	2 (8)
50~55세	1 (4)	거주 형태	
평균	40.4세 (4.07)	월세	13 (52)
최종 학력		전세	5 (20)
중학교	4 (16)	자가	0 (0)
고등학교	17 (68)	기타	7 (28)
전문대	2 (8)	기초생활수급 여부	
4년제 대학	2 (8)	수급	15 (65)
혼인 상태		비수급	8 (35)
사별	4 (16)	자활여부	
이혼	15 (60)	자활	17 (68)
별거	5 (20)	비자활	8 (32)
행불	1 (4)	월 평균 수입 (만원)	88.48 (35.99)
		월 평균 생활비 (만원)	88.56 (35.93)
		부채 (만원)	5550 (14147.22)

이를 세 가지 수준, 즉 생존, 사회적 통합, 성장으로 범주화하여 그 성취 여부를 살펴보았다. 능력공간의 기능요소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빈곤 여성가장들의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기능들을 귀납적으로 나열해보고, 능력공간의 수준에 맞게 배열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논의과정을 거쳤다.

1. 센의 능력 접근에 따른 빈곤 상태 평가

1)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생활 영역별 기능 요소 추출

센의 접근에서 기능이란 살아가면서 개인이 행하고자 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가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의미한다. 능력이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의 집합이며 능력 공간은 개인이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실제적 자유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기능들은 빈곤 여성가장들의 목소리를 통해 가치 있는 것으로 발견된 요소들이며, 연구자들의 해석을 통해 세 가지 수준으로 위계화된 것이다. 능력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기능요소들은 여성가장들의 명시적 혹은 암묵적 욕구와 사회적 기대를 반영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능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찾은 후 중복과 누락이 없는 기능으로 재구성하면서 기능의 이음을 붙였다. 센은 기능들이 적절한 영양섭취와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수치심 없는 사회생활 등과 같은 사회적인 것까지 다양한 수준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그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는 없다. 우리 연구자들은 추출된 기능들 사이에 상대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아 능력공간의 수준을 엘더퍼의 욕구이론에 따라 생존, 사회적 통합,

성장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일과 노동과 관련해서는 모두 7개의 기능요소가 추출되었다. 이 중에서 생계가능 소득 획득과 지속적인 일거리 유지는 적정 수준의 보수와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능 요소가 된다고 보아 생존 차원의 기능으로 보았다.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노동력 재생산의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빈곤 여성가장들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며 사회적인 리듬을 공유하기 원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 수준의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직업을 숨기지 않고 떳떳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일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이 형성되고 유지되어 사회자본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통합 기능의 요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이 단순히 경제적 자원의 획득 수단 이 아니라 자아 성취나 성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일을 통한 재미와 보람, 그리고 개인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성장 수준의 기능 요소로 보았다.

둘째, 건강과 관련해서는 9개의 기능요소가 추출되었으며, 이 중 노동활동 유지, 경증 질환 치료, 중증 질환 치료, 정상적 성장 발육은 생존 차원의 기능으로 보았고, 수치심 없는 의료서비스 수혜나 수월한 의료서비스 접근에는 의료 서비스를 둘러싸고 빈곤층을 차별한다는 피해 의식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 차원의 기능으로 보았다. 그리고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건강에 대한 자신감, 질병에 대한 경제적 대비 등은 건강을 자산으로 노동력 재생산이 이루어지며, 또한 실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성장 차원의 기능으로

<표 2>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생활 영역별 기능: 능력 공간

생활 영역	생존 차원 기능	사회적 통합 차원 기능	성장 차원 기능
일과 노동	· 생계가능 소득 획득 · 지속적인 일거리 유지	· 야간과 휴일 휴무 가능 · 직업 수치심 없음 · 사회관계망 형성	· 재미와 보람 성취 · 발전가능성 기대
건강	· 노동활동 유지 · 경증 질환 치료 · 중증 질환 치료 · 정상적 성장 발육	· 수치심 없는 의료서비스수혜 · 수월한 의료서비스 접근	·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 건강에 대한 자신감 · 질병에 대한 경제적 대비
주생활	· 독립된 주거 확보 · 강제 퇴거 염려 없음 · 난방 유지 · 단독 화장실 사용 · 적절한 채광 및 통풍 · 가족수에 맞는 공간 사용 · 전월세 감당 · 공과금 감당	· 주거 수치심 없음 · 친구, 이웃 초대 가능	· 원하는 교육환경 거주 · 내 집 소유 · 투자가치 추구
식생활	· 가족원 세끼 식사 · 다양한 영양소 섭취 · 어린 자녀 식사챙겨주기	· 급식 수치심 없음	· 기호식품 섭취 · 건강 증진 식품 섭취
의생활	· 여벌옷 보유	·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 · 또래와 어울리는 옷차림 · 낙인 의식 없는 의생활	· 원하는 스타일 추구
여가 및 문화	· 육체적 피로회복	· 친구/친척 교제 · 학부모 관계망 참여 · 자녀 생일잔치 차리기	· 자녀의 문화체험 · 가족 여가 보내기 · 취미활동 하기
자녀 양육 및 교육	· 고등학교 졸업 · 정서/행동문제 통제	· 친구와 어울리기 · 학교생활 지원 · 사교육 지원 · 대학교육 지원	· 체협학습 지원

보았다.

셋째, 주생활과 관련해서는 13개 기능요소가 추출되었다. 이 중 독립된 주거 확보, 강제 퇴거 염려 없음, 난방유지, 단독 화장실 사용, 적절한 채광 및 통풍, 가족 수에 맞는 공간 사용, 전월세 감당, 공과금 감당 등은 생존 차원의 기능으로 보았고, 주거 수치심 없음, 친구·이웃 초대 가능 등은 주거가 단순히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의미도 가짐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 차원의 기능으로 보았으며, 원하는 교육환경 거처, 내 집 소유, 투자가치 추구 등은 거주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장 차원의 기능으로 보았다.

넷째,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6개 기능요소가 추출되었다. 이 중 가족원 세끼 식사, 다양한 영양소 섭취, 어린 자녀 식사 챙겨주는 생존을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기능으로 보았고, 급식에 대한 수치심을 갖지 않는 것은 계속 반복된 주제로, 이면에는 무료 급식이 주는 사회적 낙인이 포함되어 있기에 사회적 통합 차원의 기능으로 보았다. 기호 식품 섭취, 건강 증진 식품 섭취는 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실천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빈곤 여성가장의 경우 건강식품 섭취를 열망 수준에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차원의 기능으로 보았다.

다섯째, 의생활과 관련해서는 5개 기능요소가 추출되었다. 이 중 여벌옷 보유는 기본적인 의생활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존 차원의 기능으로 보았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 또래와 어울리는 옷차림, 낙인 의식 없는 의생활은 의복이 단순히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의미를 갖는 드레스 코드의 성격을 보이기에 사회적 통합 차원의 기능으로 보았다. 원하는 스타일 추구는 여기에서 더 나가 의복이 개인의 개성을 보여주는 의미도 갖기 때문에 성장 차원의 기능으로 보았다.

여섯째, 여가/문화생활과 관련해서는 7개 기능요소가 추출 추출되었다. 이 중 육체적 피로 회복은 기본적으로 여가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생존 차원의 기능으로 보았다. 친구/친척 교제, 학부모 관계망 참여, 자녀 생일잔치 차리기는 여가나 문화생활이 교제를 위한 욕구, 사회적 거리를 좁혀줄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 차원의 기능으로 보았다. 자녀의 문화체험, 가족여가 보내기, 취미활동 동하기는 이러한 여가/문화활동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표 3> 빈곤 여성가장의 일 관련 기능 성취 실태

능력 공간	기능	성취 여부와 전략			영향	
		성취 여부*	생활실태	빈곤 여성가장 가구의 전략	좌절	심각성**
생존	생계가능 소득 획득	△	· 일상적 노동 시간으로는 최저 생계유지 안됨. · 여러 개의 일자리를 병행함.	· 수급자 지위 획득하여 수입 보충. · 여러 일자리를 전전. ·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 · 알바(야간, 주말). · 생활비를 최저한도로 지출.	무력감 피로	◎
	지속적인 일거리 유지	X	· 일을 오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안정성 있는 일은 포기. · 여러 일자리를 전전.	미래불안	●
통합	야간과 휴일 휴무 가능	△	· 판매직과 식당일은 빨간 글씨에 될 수 없음 · 자녀가 어린 경우 더욱 중요함	· 시간적 여유 있는 자활선택 · 판매직/식당일 보다는 영업직 선택	피로 자녀에 대한 염려	◎
	직업 수치심 없음	X	· 자활에 따른 수치심 · 자녀에게 이야기 하지 않음	· 자활 기피 · (노래방)도우미 기피 · 자녀에게 하는 일 숨김	무력감	○
	사회관계망 형성	X	· 지속적인 일을 하지 않으므로 일을 통한 관계망 거의 없음.	· 자활인 경우 같은 분야의 사람들끼리 관계 형성됨.	없음	○
성장	재미와 보람 성취	X	· 전혀 언급되지 않음	· 어떤 직장이든 있으면 해야 함.	무력감	○
	발전가능성 기대	X	· 전혀 없음. · 자격증 있지만 소용없음.	· 미래 계획 없음. · 일부 가정은 자격증 취득 준비함. · 대학진학(방송대, 야간대). 창업 희망.	불안 무력감	◎

* 성취여부 기호: ○ 모든 여성가장이 성취; △일부 여성가장은 성취; × 거의 모든 여성가장이 미성취

** 영향의 심각성 기호: ○ 심각하게 여기지 않음; ◎ 심각하게 여김; ● 매우 심각하게 여김.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차원의 기능으로 보았다.

일곱째, 자녀 양육/교육과 관련해서는 7개 기능요소가 추출 되었다. 이 중에서 자녀들의 고등학교 졸업은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기초적인 기능으로 판단하였으며, 학업 능력과 무관하게 자녀들이 특별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이러한 문제에 빈곤 여성가장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생존 수준의 자녀양육 기능으로 보았다. 나머지 기능들은 대체로 사회적 통합 수준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자녀들이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를 하는 것, 선생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자녀들의 일차적인 사회 환경인 학교에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빈곤 여성가장들은 자녀들의 최종 학력이 고졸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또한 어느 정도의 사교육을 받는 것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뿐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은 사회적 통합 수준의 기능으로 보았다. 그리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기능 중 자녀들에게 질 높은 문화 및 체형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기 어려운 문화자본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성장 수준의 기능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능 추출의 과정은 FGI와 심층면접 면접조사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들의 논의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과정을 거쳐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3. 빈곤 여성가장의 일과 자녀양육 영역 능력 평가

여기서는 위에서 추출된 기능들이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여성가장들이 이러한 기능 성취를 위해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뷰한 모든 여성가장들이 성취하고 있는 기능은 표에서 ○로 표시하였고, 일부 여성가장들만 성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로, 아무도 성취하지 못하는 기능은 X로 표시하였다. 일부 여성가장들만 성취하는 기능을 그들의 자원, 사회관계망, 취업 유형, 건강 상태 등 개인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성취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1) 일과 노동

생존 수준에 해당하는 기능들은 개인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기능, 즉 성취하지 못했을 때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박탈 상태로 간주될 기능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빈곤 여성가장의 일은 생존 수준의 기능도 유지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생존 수준의 기능인 생계가능 소득 획득은 일부 여성가장들의 경우에만 성취된다. 그러나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동력 재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상하는 육체노동 아니면 시간적으로 자녀 돌보는 어머니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자격증이나 전문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이 장기적으로 보장되는 일은 찾기 어렵고, 또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양육과 병행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흔히 여러 일자리를 전전한다.

생계부양자와 양육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빈곤 여성가장들의 전략은 기초생활수급과 자활후견기관에의 참여로 요약될 수 있다. 자활후견기관의 일은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보수가 낮지만 부족분을 기초생활의 생계급여로 보충할 수 있고,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한 다양한 통로로 생활비 보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복지관을 통해 아이들에게 개인 후원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수급자 지위에 부대되는 보육료 면제, 학비 면제, 급식비 면제 등을 통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수급자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을 정도의 '알바'를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적 통합에 해당하는 기능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대중 앞에서 수치심 없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성취되어야 하는 기능이다. 빈곤 여성가장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도출된 일과 관련한 사회적 통합 기능은 야간, 휴일,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노동의 일상적 리듬을 공유함으로써 소속감과 통합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 여성가장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는 식당일이나 할인마트에서의 영업일이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기도 하면서 또한 야간, 휴일, 주말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가장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들이다. 일부 빈곤 여성가장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서 야간과 휴일 휴무 가능이라는 기능을 성취하였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어머니들 중에는 자녀에게 참여 사실을 감추는 경우도 있었다.

빈곤 여성가장의 일 경험은 성장 지향적인 수준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여성가장들은 일을 통해 재미나 보람을 발견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이를 기대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성장 수준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존 수준 혹은 통합 수준의 기능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빈곤 여성가장들은 지금보다 조금이나마 나은 생활과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 전문성 있는 일을 소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기술 습득과 추가적인 대학 교육, 자격증 취득, 창업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인식은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된 다소 추상적인 경우가 많았으며, 발전 가능성 있는 일을 위해 실질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 경우도 드물었다. 예를 들어, 창업을 원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창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또한 수급자 지위나 자활후견기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비치면서도 구체적으로 자활이나 수급자 지위에서 탈피할 계

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2) 건강

건강은 일·노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식생활, 주생활과 같은 일상적 생활환경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건강 문제는 단지 신체적인 원인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빈곤 상태의 총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생존 차원에서 빈곤 여성가장들이 이야기하는 건강 기능들은 일상적인 노동력 재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가벼운 질환이든 무거운 질환이든 가족들이 아플 때 즉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육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빈곤 여성가장들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건강 유지 기능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취된 기능 부분도 거의 정책적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노동활동 유지의 건강 상태도 시장노동을 중단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만 보장될 수 있었고, 질병 치료도 의료급여에서 포괄하는 부분까지만 가능하였다.

정책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근종이나 디스크 증상으로 인해 수술을 권유받은 경우에도 차일피일 수술일자를 연기하고 있었으며, 자녀들의 키나 체중이 정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대처하거나 관리하는 경우가 없었다. 일종의 회피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피는 장기적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켜 다른 영역의 기능 성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 여성가장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빈곤 여성가장들이 병을 키우는 데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신 역시 이유 중 하나였다. 사회적 통합 차원의 건강 기능인 수치심 없는 의료서비스 수혜나 수월한 의료서비스 접근 면에서 빈곤 여성가장들은 모두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별한 근거 없이 의료급여를 통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거나 의사나 간호사의 태도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다. 빈곤 여성가장들은 좋은 대학병원, 비싼 건강검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열망은 이들이 사회적 통합 기능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장 차원의 건강 기능에서도 정상시의 질병 예방이나 건강 관리 기능이 전혀 성취되지 못하고 있었고, 질병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 막연한, 그러나 심각한 수준의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한편으로는 자신의

<표 4>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건강 기능 성취 여부 및 전략

능력 공간	기능	성취 여부와 전략			영향	
		성취 여부*	생활상태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전략	좌절	심각성**
생존	노동활동 유지	△	· 강도 높은 일상 노동으로 인해 뼈와 근육 관련 각종 질환 보유	· 진통제, 파스. · 고통을 참고 견디기. · 일 중단. 자활 선택	실직과 생계불안	◎
	경증 질환 치료	○	· 간단한 질환은 치료 가능 · 증상 악화 시 발견하여 대처가 지연	· 정부지원 의료급여 · 통증 참고 견디기 · 상비약 복용	걱정과 염려	◎
	중증 질환 치료	X	· 수술진단 후 병원방문연기 · 치과진료 미루기	· 야간진료 이용. · 수술 일자 연기.	걱정과 염려	○
	정상적 성장 발육	△	· 저체중, 키가 작음 · 아이들이 자주 아픔.	· 특별히 관리 못함.	걱정과 염려	○
통합	수치심 없는 의료서비스 수혜	X	· 의사와 간호사의 불친절 및 회피에 대한 굴욕감 · 약의 효능 의심 · 무료 검진은 형식적인 것으로 질병 유무 확인 효과가 없다고 인식	· 마지못한 의료급여 수용 · 뻔뻔함 유지 · 유명 병원을 선택하고픈 열망 보유 · 고가의 건강검진 열망 보유	굴욕 분노 가난한 처지 인식 불신감	●
	수월한 의료서비스 접근	X	· 입원, 응급시 복잡한 보증 절차에 대한 분노 · 이차진료기관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 마지못한 의료급여 수용		
성장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X	· 보약, 건강식품 섭취 열망이 있으나 먹지 못함 · 충치 치료와 치아 교정의 부담	· 무료 건강검진. · 치아 교정 포기.	걱정과 염려	◎
	건강에 대한 자신감	X	· 영양실조는 아니나 평소에 잘 먹지 못하고 건강 관리 못함 · 건강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됨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막연한 염려와 불안감 가중	· 건강검진 기피 · 보험가입 후 건강검진 받으려함.	걱정과 염려	●
	질병에 대한 경제적 대비	X	· 사적 건강보험 · 저축	· 사적 건강 보험, 저축 열망 보유 · 자녀만 건강보험 가입.	불안	●

* 성취여부 기호: ○ 모든 여성가장이 성취; △일부 여성가장은 성취; × 거의 모든 여성가장이 미성취

** 영향의 심각성 기호: ○ 심각하게 여기지 않음; ◎ 심각하게 여김; ● 매우 심각하게 여김.

건강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회피하고자 하는 심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비싼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싶은 욕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3) 주생활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주생활 영역의 삶은 길바닥에 나앉지 않을 정도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사회적 통합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생존을 위한 여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고 친정식구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친정식구와 같이 살면서 경제적 혹은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족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 주거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이나 불안정성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독립된 주거를 확보한 경우에

도 언제든지 주인의 요구에 따라 집을 비워야 한다는 강제 퇴거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었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 보일러 시설이 부실해서 혹은 난방비 부담 때문에 적절한 난방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단독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채광,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지하에 거주하여 지상으로 이사하는 것이 목표인 가계도 많았다. 대부분 가족 수에 맞는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성장할수록 좁은 공간에서 사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전세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라는 말처럼, 주택의 소유는 차치하고라도 매월 부담하는 월세라도 내지 않고 살아왔으면 하는 것이 이들 대부분의 소망이었다.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나면 다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쓸 돈이 없는 실정이었다. 모든 공과금을 매 달 정해진 시기에 내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연체시키는 방법도 빈곤 여성가장들이 사용하는 전략이었다. 즉 지불을 연체하면서 전기, 전화,

<표 5>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주생활 기능 성취 여부 및 전략

능력 공간	기능	성취 여부와 전략			영향	
		성취 여부*	생활실태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전략	좌절	심각성**
생존	독립된 주거 확보	△	· 저가의 주거 마련 · 더부살이	· 월세/전세/정부지원 임대주택 · 친정집 더부살이	불안 무력감	●
	강제 퇴거 염려 없음	X	· 집주인의 요구로 원하지 않는 이사를 자주 함 · 임대주택(아파트)의 경우 한시적인 안정감만 제공	· 임대주택(아파트) 신청	불안 무력감	◎
	난방 유지	X	· 보일러 고장, 난방비 절약등의 사유로 난방 부적절	· 최저의 주거비로 감수	무력감	●
	단독 화장실 사용	△	· 외부의 공동 화장실 사용	· 최저의 주거비로 감수	불편함 수치심	●
	적정한 채광 및 통풍	△	· 반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는 경우 아토피 등 이상 있음	· 마지막 못한 거주 · 임대주택(아파트) 신청 · 지상 거주 위해 다른 조건 포기	무력감	●
	가족수에 맞는 공간 사용	X	· 가족수에 비해 좁은 집에 사는 경우가 많음 · 자녀가 성장할수록 문제	· 거실을 방으로 사용 · 상대적으로 넓은 옥탑방을 선택 · 타협과 조정	미안함	◎
	전월세 감당	X	· 목돈마련 어려워 월세선택 · 월세 부담	· 열악한 주거수준 수용 · 정부지원 활용	불안 근심과	●
	공과금 감당	△	· 전기, 가스 등 공과금미납으로 서비스 중단 경험	· 부분난방 및 절전 · 한달에 한 가지씩만 몰아서 내기	불안	●
통합	주거 수치심 없음	X	· 임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소외 경험 · 자녀의 경우 집으로 인한 수치심 경험	· 옥탑방, 지하방 피하기 · 임대아파트 기피 · 타인시선 피해 몰래 출입	무력감 수치심 미안함	●
	친구, 이웃 초대 가능	X	· 집에서 사회적 교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개방하지 않음	· 포기	창피함	○
성장	원하는 교육환경거주	X	· 학군이나 교육환경은 고려대상이 못됨	· 포기		○
	내 집 소유	X	· 내 집 소유는 꿈도 꾸지 못함	· 포기	억울함	○
	투자가치추구	X	· 고려조건이 안됨	· 포기		○

* 성취여부 기호: ○ 모든 여성가장이 성취; △일부 여성가장은 성취; × 거의 모든 여성가장이 미성취

** 영향의 심각성 기호: ○ 심각하게 여기지 않음; ◎ 심각하게 여감; ● 매우 심각하게 여감.

가스 등의 서비스가 끊기기 직전에 이번 달에는 전기료, 다음 달에는 가스요금 등을 한꺼번에 내는 식이었다. 공과금을 제때 못 내서 가스 등이 끊긴 적이 있었고, 화장실을 따로 갖고 있지 못하였고,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 사는 경우는 가장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편, 임대아파트나 전세지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기적이거나 퇴거의 염려 없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전월세나 공과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러한 주거 지원은 생존 차원의 기능을 성취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 거주는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 즉 임대아파트에는 사회적 낙인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빈곤층과 비빈곤층은 주거지역에서

먼저 분리된다. 동네별, 평수별, 주택 형태별로 아이들이 끼리끼리 어울리거나 비교하는 현상이 일반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만, 빈곤층의 경우 '못 산다'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 통합 차원의 기능 성취는 주생활 영역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다른 영역에 비해 주생활은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통합 차원의 기능 성취 실패는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은 계층의 격차를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뚜렷이 확인함으로써 상대적인 결핍감과 수치심, 위축감 등을 느끼며,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자존감 형성과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친구나 이웃을 집으로 초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족의 경계가 닫혀있고 가정생활이

<표 6>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식생활 기능 성취 여부 및 전략

능력 공간	기능	성취 여부와 전략			영향	
		성취 여부*	생활실태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전략	좌절	심각성**
생존	가족원 세끼 식사	○	· 잘 해 먹진 않지만 굶지 않고 충분히 먹을 수 있음	· 정부지원 쌀/부식(학령기자녀가정) · 학교급식과 공부방 식사 · 저렴한 식재료(김치, 두부, 생선, 인스턴트 식품)		○
	다양한 영양소 섭취	X	· 성장기자녀에 필요한 우유 및 유제품 섭취 부족 · 과일/고기류 섭취 부족	· 초등생은 학교급식으로 우유 섭취 · 유제품 가끔 구입	근심과 염려	○
	어린 자녀 식사 챙겨주기	X	· 학령기 자녀: 학교급식과 공부방 식사, 음식 꺼내 먹기 · 중학생 이상: 라면, 음식 꺼내 먹기	· 공부방 급식 · 라면, 참치 캔 등 인스턴트 식품	근심과 염려	◎
통합	급식 수치심 없음	X	· 무료 학교급식	· 마지못한 수용 · 급식 거부	창피함	●
성장	기호식품 섭취	X	· 피자, 치킨, 돼지갈비 등 자녀들이 선호하는 기호식품을 한정적으로 섭취 · 쇠고기, 과일류 등 고가 식재료와 기호식품은 먹지 못함	· 여유 있는 친척에게 의존 · 비만 등 몸에 안 좋을수록 · 엄마는 안 먹고 아이들만 먹임 · 마트 시식코너 이용	박탈감	◎
	건강 증진 식품 섭취	X	· 몸에 좋은 영양제, 보약, 고가의 건강식품을 인식하고 있으나 섭취는 고려조차 못함	· 포기	박탈감	○

* 성취여부 기호: ○ 모든 여성가장이 성취; △일부 여성가장은 성취; × 거의 모든 여성가장이 미성취

** 영향의 심각성 기호: ○ 심각하게 여기지 않음; ◎ 심각하게 여김; ● 매우 심각하게 여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가족이 사회로부터 고립됨으로써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빈곤 여성가장 가계는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장을 위한 주생활 기능을 전혀 성취하지 못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 근심과 염려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빈곤 여성가장들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생활에서 이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제공,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난방, 화장실, 통풍, 채광 등 최소한의 여건을 충족하는 집에 거주할 수 있는 능력 등 생존 차원의 기능 성취에 대한 것이었다. 빈곤 여성가장들은 개인의 힘으로 주생활 능력을 향상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지원 등에 대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동시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없어져서 자녀들이 주거 수치심 없는 집에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사회적 통합 차원의 주생활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4) 식생활

식생활에서의 기능 성취 여부를 살펴보면,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생존 차원의 기능은 부분적으로 성취하고 있는 반면 통합이나 성장 차원의 기능은 전혀 성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족원 모두 세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달성하고 있었지만,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식생활은 밥과 저렴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조리한 음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밥과 간단한 반찬 이외에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식품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양한 식품성취는 균형잡힌 영양, 정상적인 성장 발육, 건강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빈곤 여성가장들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식생활과 관련해서 여성가장들이 심각하게 여기는 부분은 어린 자녀들의 식사 준비 기능과 초·중·고등학생의 무료 급식과 관련된 문제였다. 어린 자녀들의 식생활을 제대로 돌볼 여유가 없는 것은 모든 계층의 취업여성이 시간부족으로 인해 경험하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빈곤 여성가장 가계는 다른 계층에 비해 경제력이나 가족자원 측면에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시간부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선택할 자유가 제한된다. 다른 계층의 취업주부의 경우 타 가족원의 노동력이나 가사도우미의 이용, 영양가 있는 음식 준비해 놓기, 시간적으로 융통성 있는 직업 선택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의 경우에는 공부방 등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같은 사회적 지원이 유일한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표 7>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의생활 기능 성취 여부 및 전략

능력 공간	기능	성취 여부와 전략			영향	
		성취 여부*	생활실태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전략	좌절	심각성**
생존	여벌옷 보유	○	· 기본적인 옷은 있음	· 물려 입기 · 얻어 입기 · 필요한 것만 사기		
통합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	X	· 정장은 거의 없음 · 입을 옷이 없어 사회적 모임참여 포기	· 있는 옷 깨끗하게 손질 · 빌려 입기 · 값싼 의복 구입	열등감 자신감 결여	○
	또래와 어울리는 옷차림	△	· 자녀들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에 마음 아픈 경험 · 본인에게는 신경 쓰지 않음	· 허름한 것 피하기 위해 겉옷만 새것으로 장만 · 세일할 때 사들 · 중저가 브랜드 이용 · 포기	수치심 마음아픔	◎ (청소년 자녀의 경우)
	낙인 의식 없는 의생활	X	· 가난한 사람은 차려입어도 흉	· 가난을 드러내고 싶지 않음 · 구입 안 함, 좋은 옷 안 입을	수치심 좌절 경험	○
성장	원하는 스타일 추구	X	· 아이들이 원하는 메이커 옷, 신발 사줄 수 없음 · 청소년기자녀인 경우 부담감 많이 느낌 · 고급브랜드 옷 착용에 대한 사회적 제재 느낌	· 중저가 브랜드 선택 · 한 번에 하나씩 사들 · 본인 옷은 포기	상대적 박탈감 위축감 (영세자 낙인 인식)	◎ (청소년 자녀의 경우)

* 성취여부 기호: ○ 모든 여성가장이 성취; △일부 여성가장은 성취; × 거의 모든 여성가장이 미성취

** 영향의 심각성 기호: ○ 심각하게 여기지 않음; ◎ 심각하게 여김; ● 매우 심각하게 여김.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식생활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는 문제는 자녀들이 학교급식 수급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한다는 심리적인 고통이었다. 자녀들은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수급자 지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학교나 교사의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무료 급식대상인 것이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받는다. 이처럼 식생활 영역에서 사회적 통합 차원의 기능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 여성가장에게는 학교급식과 통합 차원의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전달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동사무소에서 식품을 지원받는 경우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거나 바꿀 자유가 제한되어 있거나, 지원 식품 중에 인스턴트 식품이 많아 아이들의 입맛과 식습관이 그에 따라가는 등, 지원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개선점이 많다. 또한 그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기능상의 문제로 성장기 자녀의 저체중, 발육저하 등을 초래하는 영양 불균형 문제가 있다. 이는 정책적 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이처럼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경우 기본적인 식생활문제는 해결되고 있었지만 영양적인 면에서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식생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학교급식이나 공부방에서의 식사, 동사무소에서의 식품 지원 등은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식생활 기능 달성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수행방법에 있어서의 개선이 따른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5) 의생활

의생활 영역은 기능 성취 여부에 있어서 빈곤 여성가장들이 심각성을 가장 덜 인식하고 있는 영역이었다.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생존 차원의 기능은 성취하고 있는 반면, 통합이나 성장 차원의 기능은 거의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지만 좌절감은 크게 느끼지 않고 있었다. 빈곤 여성가장들은 여벌옷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물려 입기, 얻어 입기, 가장 싼 것 구매하기 등으로 옷이나 신발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 하였다. 이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옷을 가지거나, 옷을 통한 만족이나 멋의 추구 등의 성장 차원의 기능은 아예 포기하고 있었으며,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갖추는 사회적 통합 차원의 기능도 성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친척 결혼식 등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에는 평소 입는 옷을 깨끗하게 하거나 빌려 입고 참여하거나, 입을 옷이 없는 경우 정장을 요구하는 모임을 기피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기회가 제약되며, 자각 지심이나 자신감 결여, 초라함과 같은 정서적 빈곤 상태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빈곤 여성가장들은 자신의 의생활에서의 결핍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자녀의 의생활 기능 성취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누추하게 보이거나 옷 때문에 무시당할까봐 염려하였다. 청소년

<표 8>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여가/문화생활 기능 성취 여부 및 전략

능력 공간	기능	성취 여부와 전략			영향	
		성취 여부*	생활실태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전략	좌절	심각성**
생존	육체적 피로회복	△	· 과도한 일, 시간부족으로 항상 수면부족, 피로감 누적 ·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함	· 집에 오자마자 휴식 · 자활후견기관 취업 · 직장을 잠시 쉬	고달픔	◎
통합	친구/친척 교제	X	· 의식, 선물, 초대 등에 지불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 없음	· 대부분 포기	포기	○
	학부모 관계망 참여	X	· 언급하지 않음	· 포기	포기	○
	자녀 생일잔치 차리기	X	· 자녀 스스로 요구조차 못함	· 포기	포기	○
성장	자녀의 문화체험	△	· 체험 기회와 다양한 지적 자극을 직접 제공하지 못하므로, 제도적 지원을 활용함	· 공부방/교회 활용 · 동반자 선생님 제도 활용	위축감 아픔	◎
	가족 여가 보내기	X	· 의식, 여행 등 자녀들과 돈이 드는 여가활동은 거의 못함	· 비용이 안 드는 활동 선택 · 종교 활동	포기	○
	취미활동 하기	X	· 취미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으며, 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눈을 의식함 · 자녀에게 특별한 취미활동 기회를 제공 못함	· 자녀는 컴퓨터 게임, 만화, TV시청	포기	◎

* 성취여부 기호: ○ 모든 여성가장이 성취; △일부 여성가장은 성취; × 거의 모든 여성가장이 미성취

** 영향의 심각성 기호: ○ 심각하게 여기지 않음; ◎ 심각하게 여김; ● 매우 심각하게 여김.

년기 자녀를 둔 경우에는 또래와 어울리는 옷차림을 해주려고 노력하였으나, 자녀들이 원하는 메이커 옷이나 신발 등을 잘 사주지 못해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사회적 통합 차원의 의생활 기능은 성인들보다는 자녀, 특히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더욱 절실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 여성가장은 좋은 옷을 구입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하지만 구입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느끼고 있었다. 정부지원을 받는 수급자인데 새 옷을 사거나 고급 옷을 사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으로, 좋은 옷을 사는 것 자체에 대해 위축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스스로 자유를 제한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빈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제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인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셴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빈곤이 단순히 자원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대부분은 의생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기능도 성취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기 자녀를 둔 빈곤 여성가장 가계는 의생활에서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 통합 기능과 성장 기능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기능을 성취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아픈 마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6) 여가/문화생활

<표 8>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여가

/문화생활은 거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적 통합 및 성장 차원의 기능은 물론이고, 생존을 위한 육체적 피로회복 기능도 잘 성취되지 못하고 있었다.

여가/문화생활의 생존 차원의 기능은 육체적 피로 회복이다. 빈곤 여성가장들은 장시간 노동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몸이 피로한 상태였다. 육체적 피로 회복 기능은 건강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여성가장들은 그냥 집에서 자거나 쉬는 것 말고는 육체적 피로를 해결할 다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생존 차원의 휴식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체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가 축적되는 등 건강 상태가 점차 악화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여성가장들은 버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된다. 한편 자활사업은 일상적 피로 회복의 기능을 성취하지 못한 여성가장들에게 어느 정도의 쉬이 가능한 일터를 제공하고 있었다. 자활사업의 일들은 대체로 보수는 낮지만 노동 강도의 측면에서는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육체노동에 지친 어머니들은 전략적으로 자활 사업을 선택함으로써 육체적 피로회복을 꾀하고 있었다.

여가/문화생활의 사회적 통합 차원 기능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참여함으로써 교제의 범위를 넓히고 관계를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이다. 빈곤 여성가장은 가족과 일, 친척 외의 사회집단에 소속되거나 교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는 빈곤 여성가장이 다른 계층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부족하며, 생활반경이 제한되어 있고,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실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빈곤 여성가

<표 9> 빈곤 여성가장 가구의 자녀양육 관련 기능 성취 실태

능력 공간	기능	성취 여부와 전략			영향	
		성취 여부	생활실태	빈곤 여성가장 가구의 전략	좌절	심각성
생존	고등학교 졸업	○	· 고등학교까지는 보낼 수 있음	· 정부지원(학비면제) · 후원기관의 장학금 수혜	고마움, 상처	○
	정서/행동문제 통제	△	· 초등학교까지는 생활지도가 가능함. · 사춘기 자녀의 일탈 행동 등으로 관계 악화.	· 자활 선택하여 시간 냄. · 동생에 대한 책임감 교육 · 회피하기(사춘기자녀) · 무리해서 핸드폰 구매	불안, 초조, 어려움, 난감	●
통합	친구와 어울리기	△	· 초등학교에 가면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끼리 어울리게 됨.	· 무료 급식 대신 급식비 냄. · 학생회 간부는 되도록 포기. · 공부는 잘 못함.	측은, 불안, 비참함	●
	학교생활 지원	X	· 자녀학교생활에 대해 잘 모름. · 학교 방문 거의 안함.	· 녹색어머니회 등 학교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무력감	◎
	사교육 지원	X	·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못함. · 학원에 안다녀 성적이 떨어진다고 생각함. · 학원에 안다녀 친구 없음.	· 사교육 거의 포기. · 공부방 활용. · 학원비 지원 받는 경우 있음. · 성적에 대한 포기. · 집에서 컴퓨터하며 혼자 지냄.	불안 무력감	●
	대학교육 지원	△	·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 실업계로 진로 지도하는 것에 섭섭함.	· 전문대학 선택. · 학자금 대출. · 자녀 아르바이트.	막연, 불안	○
성장	체험학습 지원	△	· 체험학습의 필요성 절실하게 느낌. · 경제적 여유 생기면 문화생활하고 싶음	· 공부방 복지관 등 활용.	무력감 비참함 측은	●

* 성취여부 기호: ○ 모든 여성가장이 성취; △일부 여성가장은 성취; × 거의 모든 여성가장이 미성취

** 영향의 심각성 기호: ○ 심각하게 여기지 않음; ◎ 심각하게 여감; ● 매우 심각하게 여감.

장의 경우 자녀의 학부모들과 어울린다고 한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들의 경우, 생일잔치에 초대받거나 초대하는 것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그러나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경우 자녀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는 집으로 누구를 초대할 수 없다는 주생활 영역에서의 사회적 통합 기능 미성취와 맞물려 여가/문화의 사회적 통합 기능도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다.

여가/문화생활의 성장 차원 기능은 생활의 폭과 깊이를 더하여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가족의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고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기능 성취에 있어 빈곤 여성가장 가계는 결핍과 능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다.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경우 산책 등 경제적 비용이 들지 않는 가족활동만을 할 수 있었으며, 자신을 위한 취미활동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성장 차원의 여가/문화생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은 자녀들의 문화체험 기능이다. 빈곤 여성가장들은 자녀의 문화적 결핍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문화적 결핍이 미칠 교육적 효과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 이런 여성가장들에게 공부방이나 복지관은 자녀들이 견학, 체험학습, 놀이, 멘토링의 기회를 통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장구가 된다.

정기적으로 문화생활의 기회가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이나마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 여성가장들은 고마워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일부 빈곤 여성가장들은 이러한 기회에 대한 정보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빈곤 여성가장은 여가/문화생활에 있어서 생존, 사회적 통합, 성장을 위해 달성되어야 할 기능들을 거의 성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빈곤 여성가장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육체적 피로회복 기능과 자녀의 성장을 위한 자녀 문화체험 기능의 미성취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며, 위축감, 염려, 마음아픔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은 취업주부의 특성상 자녀들을 늘 돌볼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될 수 있으나 다른 계층의 경우 구매력에 기초하여 문화체험의 기회를 소비할 수 있는 데 비해 빈곤층에서는 다른 대안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육체적 피로회복과 자녀 문화체험과 같은 기능의 성취를 돕는 제도적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10>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능력 집합실태

	일	건강	주생활	식생활	의생활	여가/문화	자녀양육 및 교육
생존	생계가능 소득 획득	노동활동 유지	독립된 주거 확보	가족원 세끼 식사	여벌옷 보유	육체적 피로회복	고등학교 졸업
	지속적인 일거리 유지	경증 질환 치료	강제 퇴거 염려 없음	다양한 영양소 섭취			정서/행동문제 통제
		중증 질환 치료	난방 유지	어린 자녀 식사챙겨주기			
		정상적 성장 발육	단독 화장실 사용				
			적정한 채광 및 통풍				
			가족수에 맞는공간사용				
통합	아간과 휴일 휴무 가능	수치심 없는 의료서비스 수혜	주거 수치심 없음	급식 수치심 없음	때와 장소에 맞는옷차림	친구/친척 교제	친구와 어울리기
	직업 수치심 없음	수월한 의료서비스 접근	친구, 이웃 초대 가능		또래와 어울리는 옷차림	학부모 관계망 참여	학교생활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낙인 의식 없는 의생활	자녀 생일잔치 차리기	사교육 지원
							대학교육 지원
성장	재미와 보람 성취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원하는 교육환경 거주	기호식품 섭취	원하는 스타일 추구	자녀의 문화체험	체험학습 지원
	발전가능성 기대	건강에 대한 자신감	내 집 소유	건강 증진 식품 섭취		가족 여가 보내기	
		질병에 대한 경제적 대비	투자가치 추구			취미활동 하기	

성취된 기능 부분 성취된 기능 미성취된 기능



(7) 자녀양육 및 교육

자녀양육 및 교육은 빈곤 여성가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영역이면서 동시에 정책적 지원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이다. <표 9>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녀양육 및 교육의 생존 수준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는 최소한의 기능은 성취하고 있었지만 자녀의 정서/행동문제 통제 같은 생활지도 면에서는 기능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자녀의 정서적 문제와 행동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가장들은 때로는 회피라는 소극적인 전략으로, 또는 일을 중단할 정도의 적극적 전략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고 있었다.

사회적 통합 수준에 해당되는 기능은 친구와 어울리기, 학교 생활 지원, 사교육 지원, 대학교육 지원 등이었다. 이러한 기능들 중 친구와 어울리기, 대학교육 지원 등은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반면, 학교생활 지원이나 사교육 지원 등은 거의 성취되지 못하였다. 빈곤 여성가장들이 자녀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표준은 높아, 여성가장들은 대학교육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녀가 어린 경우에도 막연하게 대학까지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생 연령의 자녀가 있는 여성가장

들은 대체로 전문대학을 선택하거나 학자금 대출, 자녀 아르바이트 등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거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성가장들은 거의 없었다.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성장 수준에 해당되는 기능은 체험 학습 지원이었다. 자녀의 예체능 교육이나 학업 지원을 위해 사교육 지원이나 체험학습 지원이라는 기능을 성취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이로 인한 좌절감도 가장 심각하게 표출하였다. 빈곤 여성가장들은 사교육 지원 기능과 더불어 자녀의 체험학습 기능을 성취하지 못함으로써 자녀들이 받게 되는 교육적, 정서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으며, 결국 이것이 빈곤의 대물림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표 10>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능력 집합 실태는 매우 열악하였다. 즉 빈곤 여성가장 가계에서 성취한 기능은 건강 영역에서 '경증 질환 치료', 식생활 영역에서 '가족원 세끼 식사', 의생활 영역에서 '여벌옷 보유',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등 주로 생존 수준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도 일부 생활 영역에 제한되어 있었다. 빈곤 여성가장 가계에서 부분 성취한 기능은

수준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생존 수준 기능에서는 일과 노동 영역에서 '생계가능 소득 획득', 건강 영역의 '노동활동 유지', '정상적 성장발육', 주생활 영역에서 '독립된 주거 확보', '단독 화장실 사용', '적정한 채광 및 통풍', '공과금 감당', 여가/문화생활 영역의 '육체적 피로회복',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에서 '정서/행동문제 통제' 기능들이었다. 사회적 통합 수준 기능에서는 일과 노동 영역에서 '야간과 휴일 휴무 가능', 의생활 영역에서의 '또래와 어울리는 옷차림', 그리고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의 '친구와 어울리기', '대학교육 지원' 등이었다. 성장 수준에서 부분 성취된 기능은 여가/문화생활 영역의 '자녀의 문화체험',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의 '체험학습 지원' 뿐이었다. 그 외 다른 기능은 미성취된 기능이었다.

V.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빈곤 경험과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량적 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센의 능력 접근을 응용하여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이 높은 여성가장 가계의 일상생활 경험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빈곤 연구들과 다른 점은 빈곤의 실태를 소득이나 자원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실제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능력과 기능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빈곤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이론적 틀에서 파악하고 평가하는 결과들은 거의 없다. 이는 빈곤에 대한 이론을 질적인 접근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이론적 틀에서 설명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인구의 빈곤실태를 비교하거나, 시기에 따른 빈곤실태의 변화를 설명하는 등 체계적인 비교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센의 능력 접근과 엘더퍼의 욕구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 여성가장 가계에서 성취한 기능은 건강 영역에서 '경증 질환 치료', 식생활 영역에서 '가족원 세끼 식사', 의생활 영역에서 '여벌옷 보유',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등 주로 생존 수준의 기능에 한정된다. 반면, 건강과 주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영역에서는 생존 차원의 기능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경우 기초적인 노동력은 재생산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에는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순노동직에 주로 종사하는 빈곤 여성가장의 경우 건강이 노동력의 원천이 되는데, 이 영역에서도 생존 차원의 능력도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고리를 자를 수 있는 단서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정부의

빈곤 정책에도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학력별 임금 격차나 직종별 임금 격차가 심한 우리 사회에서 자녀에게 대학교육의 혜택을 주지 못하는 빈곤 상황은 빈곤의 세대 간 전이가 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 부분 성취한 기능은 수준별로 볼 때, 생존 수준 기능에서는 일과 노동 영역에서 '생계가능 소득 획득', 건강 영역의 '노동활동 유지', '정상적 성장발육', 주생활 영역에서 '독립된 주거 확보', '단독 화장실 사용', '적정한 채광 및 통풍', '공과금 감당', 여가/문화생활 영역의 '육체적 피로회복',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에서 '정서/행동문제 통제' 기능들이다. 사회적 통합 수준 기능에서는 일과 노동 영역에서 '야간과 휴일 휴무 가능', 의생활 영역에서의 '또래와 어울리는 옷차림', 그리고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의 '친구와 어울리기', '대학교육 지원' 등이다. 성장 수준에서 부분 성취된 기능은 여가/문화생활 영역의 '자녀의 문화체험',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의 '체험학습 지원'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경우 기본적인 생존 수준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다른 세대에 대한 희망도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물질적인 삶의 장애가 결국은 자신들을 사회의 주변부로 인식시키면서 사회적 통합에도 저해가 되며,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고착시킴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비가 사회의 중심 생활로 자리 잡고 있는 소비사회에서 일부 생활영역에서만 생존 차원의 기능을 성취하고 있는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삶의 실태를 통해서 보면, 빈곤 정책은 개별 빈곤 가계의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빈곤 가정의 생활실태에 민감하게 제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경우 일과 노동, 건강, 주생활,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에서의 생존 차원 기능의 성취는 주로 정부의 가계지원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 가계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 주거, 노동 분야의 복지 서비스 지원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원 정책은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서는 사회적 투자의 한 영역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실적인 생활수준뿐만 아니라 소비만능사회에서 '난한 자'로 살아가는 데서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이나 수치심 등이 빈곤 여성가장이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요인은 사회적 통합에도 장애로 작용한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서비스의 콘텐츠를 기획할 때에도 생존 차원의 기능만 고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통합 차원이나 성장 차원까지 고려하는 등 복지서비스 소비자에게 민감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일과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와 열망을 센의 능력 접근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빈곤에서 비롯되는 구체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센의 능력 접근에 따라 도출하고 엘더피의 욕구이론에 따라 생존, 사회적 통합, 성장의 세 가지 하위 수준으로 범주화한 기능 요소들은 욕구의 위계에 따라 상대적인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반영하는 '생활의 질'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생존 수준과 사회적 통합 수준에 해당하는 기능들의 성취 실패는 센이 언급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심각한 박탈 상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생존 수준의 기능 요소들과 사회적 통합 수준의 기능 요소들은 '빈곤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빈곤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일과 자녀양육에 관련된 능력 공간을 구성하고 기능의 성취 여부를 평가해봄으로써, 그리고 각 기능간의 상호 연계성이나 상쇄 효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빈곤 여성가장들이 '생활유지'를 위하여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빈곤 정책이나 공적 지원체계가 어느 수준의 어느 기능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며,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빈곤 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과제 개발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생활영역에서의 성장 수준의 기능은 미래 희망 및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장기적인 청사진을 갖고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남식·백선희(2001). 여성복지적 관점에서의 자활지원 사업 분석과 활성화 방안. **사회보장연구**, 17(2), 49-78.
- 공선영(2001). 모자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3(1), 75-105.
- 교육인적자원부(2005). **교육통계연보**.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연구**, 22, 5-32.
- 구인회(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 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 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 김승용(2005). 빈곤여성의 가족기능과 관련 요인. **한국가족관계 학회**, 10(3), 107-124.
- 김안나(2006). 한국사회 여성빈곤과 빈곤대책. **보건사회연구**, 26(1), 37-68.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에 관한 질적 내용분석. **안성산업대 논문집** 28, 245-252.
- 박영란·황정임(2002).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 복지학**, 56(2), 167-194.
- 성정현·송다영(2006). 근로빈곤층 여성가장 가구의 생활실태와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5, 81-106.
- 송다영(2006). 한부모가족과 여성사회권. **사회복지정책**, 27, 171-199.
- 아마티아 센(1992). 이상호·이덕재 역(1999). **불평등의 재검토**. 서울: 한울.
- 아마티아 센(1999). 박우희 역(2001). **자유로서의 발전**. 서울: 세종연구원.
- 여지영(2003). **여성가장과 남성가구주의 빈곤차이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승환(2006). 저소득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 적응유연성 요인의 탐색. **한국아동복지학**, 21, 181-205.
- 옥선화·성미애(2004). **빈곤여성가장의 삶**. 서울: 하우.
- 옥선화·성미애·배희분·이재림(2002). 빈곤 여성가장의 대처 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6), 223-243.
- 옥선화·성미애·이재림(2003). 빈곤 여성가장의 삶의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2), 65-92.
- 유정원(2000). **한국여성 빈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홍식·김광혁(2006). 여성과 남성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재)취업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24(4), 89-116.
- 이상호(2001). 센의 능력과 사회정의: 롤즈의 정의관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17, 283-316.
- 이성림(2004). 편모가계 여성가장의 취업 및 가계의 경제상태: 양부모 가계와의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69-179.
- 이성림·김민정(2001). 여성가장 가구의 인구학적 동향과 경제적 복지상태. **소비자학연구**, 12, 17-30.
- 이성림(2007). 센의 빈곤개념-능력 접근에 대한 일 고찰. **한국 소비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이재기·이은우·김재홍(1998). 삶의 질의 개념, 구성요소 및 측정방법: A Survey.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8(2).
- 이혜경(1998). **빈곤의 여성화: 한국 여성 빈곤의 원인과 결과**. 빈곤퇴치: 한국의 경험과 교훈. 서울: UNDP한국대표부.
- 조용환(1997). **질적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정미숙(2001). 여성가장, 성별화된 빈곤 그리고 일. **경제와 사회**, 5, 38-67.
- 정영숙·박충선(1998). 편모가계와 편부가계의 빈곤개념-상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의 비교적 접근. **사회과학연구**, 54, 73-88.
- 정원오·김진구(2005).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 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

복지연구, 28, 35-67.

- 진미정·김은정(2005).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소득구성과 물질적 곤궁 경험. **사회복지연구**, 27, 163-188.
- 최균·서병수(2006). 빈곤연구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Sen의 가능성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25(8), 333-362.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2006). **자활사업 종합 보고서**.
- 한경혜·성미애·진미정(2006). **가족발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한성덕(1998). 삶의 질 지표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 4(3).
- 황미영(2005). 여성 한부모에 대한 관점에 따른 노동연계복지 전략의 차별성: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3(12), 345-369.
- 황정임·송치선(2006). 자활공동체 유형별 빈곤여성의 자활 경험에 관한 연구-자활공동체가 갖는 대안적 일자리로서의 가능성 탐색. **여성연구**, 70, 85-120.
- Alderfer, P.(1972).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s*. N.Y.: Free Press.
- Sen, A.(1983). Poor, Relatively Speaking. *Oxford Economic Papers, New Series*, 35(2), 153-169.
- Sen, A.(1984). The Living Standard. *Oxford Economic Papers: New Series*, 36, 74-90.
- Strauss, A. L.(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N.Y.: Cambridge University.

- 접수일 : 2008년 12월 01일
- 심사일 : 2009년 03월 06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3월 06일

<부록 1> FGI 참여 빈곤 여성가장의 일반적 특성

(N=20)

대상자 (연령)	직업	학력	혼인 상태	가족원	월수입 (만원)	기초수급 여부	월생활비	부채 (만원)	거주 형태
A-1 (42)	간병	전문대	이혼	딸(15), 딸(13) 딸(11), 아들(10)	120	Y	149	0	기타
A-2 (36)	간병	대학교	이혼	아들(7), 아들(3)	100	Y	100	3500	전세
A-3 (40)	간병	중학교	사별	아들(16) 딸(13), 딸(12)	65	Y	60	2000	월세
A-4 (34)	간병	대학재학	이혼	딸(7), 딸(4)	70	Y	57	900	임대주택
A-5 (43)	장애통합 도우미	고등학교	별거	딸(20), 아들(17)	100	N	100	0	전세
A-6 (33)	자활기관 사무직	고등학교	이혼	아들(7), 아들(5)	70	Y	70	2000	월세
A-7 (37)	간병	중학교	이혼	딸(8) 아들(6), 아들(4)	60	Y	60	0	월세
A-8 (42)	보육지원 도우미	고등학교	이혼	딸(21), 딸(17)	60	Y	68	2500	월세
A-9 (0)	세탁사업	무응답	이혼	아들(16), 아들(7)	92	Y	105	0	친정집
B-1 (39)	직원숙소 식당일	전문대	배우자 행불	딸(13), 딸(11) 아들(6)	100	Y	121	8000 (신불)	월세
B-2 (40)	백화점 판매	대학교	이혼	딸(14), 딸(11)	110	Y	109	1800 (신불)	월세
B-3 (43)	식당 + 자활	고등학교	이혼	딸(17), 딸(20)	무응답	Y	110	2000	전세
B-4 (40)	고객 센터 상담	고등학교	별거	아들(18) 아들(15), 딸(8)	100	Y	156	1억 (신불)	월세
E-1 (40)	장애통합 도우미	고등학교	이혼	딸(14), 딸(13) 딸(12), 딸(11)	60	Y	137	8000	월세
E-2 (48)	간병인	중학교	별거	아들(9)	60	N	60	850	월세
E-3 (52)	부동산중개사 무실	고등학교	이혼	아들(16)	60	Y	68	1000	임대
E-4 (40)	전화 고객관리	고등학교	이혼	딸(7)	43	Y	65	700	모자원
E-5 (39)	옷가게 아르바이트	고등학교	별거	아들(10)	40	Y	65	1500	월세
E-6 (37)	장애통합 도우미	고등학교	이혼	딸(8)	60	Y	70	1000	월세
E-7 (38)	가사관리사	고등학교	비혼	부(84), 모(78) 아들(10)	50	Y	90	1500	친정집

<부록 2> 빈곤 여성가장 심층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

대상자 식별기호	직업	학력	혼인상태	가족원	월수입 (만원)	기초 수급여부	월생활비 (만원)	부채 (만원)	거주형태
I-가 (42)	가정지킴이	고등학교	이혼	딸(17) 아들(12) 아들(10)	100	Y	150	500	월세
I-나 (45)	사랑의 가게	중학교	별거	딸(20) 딸(18) 아들(15)	75	Y	90	7억	동생집
I-다 (38)	장애통합도우미	고등학교(미등록신학대)	사별	아들(14) 아들(11)	100	Y	100	0	임대아파트
I-라 (39)	급식소	고등학교	이혼	딸(14)	50~60	N	61	0	오빠집
I-마 (43)	부동산 중개업무	고등학교	사별	딸(18) 딸(13)	230	N	159	2000	전세
I-바 (40)	식당	고등학교	사별	아들(15) 딸(12)	75	Y	65	0	전세